강진군청·경찰서 불자회 창립

14일 합동법회…재소자 포교 · 청소년 선도 역점


◇윤중근


◇김남용

전남 강진에서 군청 공무원 및 경찰 불자들이 신행모임을 결성한다. 14일 오후 5시 30분 강진군민회관에서 합동 창립법회를 봉행하는 이들 모임들은 특히 백련사 주지인 혜일스님을 지도법사로 초빙, 매주 연합법회를 계획하는 등 지역불교의 발전을 위해 연계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윤중근 회장 등 5명의 군청 공무원들이 불자회 결성을 논의한 후 3개월 만에 40여 명으로 출발하는 강진군청불자회(회장 윤중근)는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행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둔사, 무위사, 백련사 등 강진 지역의 주요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해온 공무원들이 불교를 공부하며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무원 불자가 되자는 공의가 모인 탓이다. 윤 회장은 "군청과 읍 · 면사무소의 인트라넷을 이용해 불자회 결성을 알려 회원을 배가하고, 강진경찰서 경불회와 유기적인 신행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강진경찰서 경불회(회장 김남용) 역시 매주 일요일 백련사에서 강진군청불자회와 함께 마련하는 연합법회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교리공부나 성지순례는 물론 청소년 선도, 장흥교도소 포교, 고승 초청법회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 지역 불교계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강진 거사림회와 함께 지역불교의 토대를 다지는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경제난 극복" 금융불심 뭉친다

금융단불교련 14개 불자회 12월 1일 법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김윤하 · 수현)는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한국은행 별관 8층 강당에서 제26차 금불련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은행 불자회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법회에는 제일, 기업, 서울, 산업, 외환, 한빛, 조흥, 수협, 농협, 수출입은행과 증권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등 14개 금융기관 150여 행원 불자들이 참여한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법문하고 조계사 합창단이 축하 공연하며, 공무원불자연합회도 동참한다.

89년부터 년 2회 금융인 법회를 봉행해 온 금불련은 불우이웃돕기, 군부대위문, 자연 및 전통사찰 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02)750-6835 오종욱 기자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5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02)722-4162


◇많은 사람에게 불화를 보시하기 위해 공휴일이나 휴가때도 붓을 놓지않고 있다는 조경사.

"불화보고 자성 깨치기 기원"

탱화 · 달마도 보시하는 달서경찰서 조상구 경사

"달마도는 '본래 마음을 보라'는 화두와 같습니다. 위법행위 등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 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과 경찰서에 탱화와 달마도를 보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불자 경찰이 있어 화제다. 대구 달서경찰서 법우회장 조상구(53) 경사가 바로 그 인물이다.

조 경사의 탱화는 대구 재원사에서 경북 칠곡 금오사까지 대구 · 경북 일대 20여 사찰에 걸려 있다. 뿐만 아니다. 조 경사는 불자 경찰들의 모임인 법우회가 있는 경찰서마다 달마도를 선물해, 대구 지역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자 달마도를 보며 잠시 마음을 추스르기도 한다.

97년도부터 시작된 조 경사의 '탱화와 달마도 보시'는 자연 지역 사찰과 경찰 법우회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매개체가 됐다. 또한 경찰서 법우회의 입지도 강화시켜, 회원이 늘어난 효과도 얻었다. 그의 불화 그리기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조 경사가 달마도와 탱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그는 80년대부터 금강경독송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금강경〉만 1000독(讀)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 의문을 하나씩 해결해가자 자연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 생각이 커졌다. 여기에 20여 년 가까이 각종 불화를 수집해오면서, 불화 그리기도 배우게 되자 '불화 포교'라는 서원이 세워졌다.

금강경 1000독후 포교나서
33관음도 그려 사찰에 전달
퇴직후 화가돼 불화보시할터

조 경사의 서원은 대구 영남불교대학에서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와 불모의 길을 걷고 있던 영범스님을 만나 불화 그리기를 사사받을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경전을 공부해 불화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기에 10년 동안 한시도 붓을 놓지 않고, 공휴일이나 휴가 때는 화실에서 그림에만 매달린 조 경사의 성실함에 솜씨는 일취월장했다.

조 경사는 이때부터 다른 이들이나 사찰에 달마도와 탱화를 보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두 차례의 전시회와 제5회 대구경북미술대전 입선, 제9회 경북서예대전 입선 등의 영예도 안았다. 특히 제11회 공무원미술대전에서의 특선은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불화의 전문가로 우뚝 선 때문이다.

"정성껏 그린 불화를 보시할 때마다 환희심을 느낀다"는 조상구 경사는 "불화를 보시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력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 뒤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 모두에게 불화를 보시하고 불우이웃 돕기 자선 전시회도 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조 경사는 '33관음도'를 그리고 있다. 이 탱화 역시 달서경찰서 법우회에게 법회 장소를 제공하는 있는 대구 달서구 관내 사찰 중 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4~5개월 동안 힘들게 그린 불화를 법우회 발전을 위해 보시하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수행도량 · 문화재 지키자" 결의

불교산악인련 4돌법회

37개 지회 1400여명 참석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대행 정인악)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사찰 환경 및 불교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주제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강주 지안스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을 비롯해 전국 37개 지회에서 1400여 산악인이 동참했다.

지안스님은 법문을 통해 "산의 정상에서 보는 탁 트인 전망과 같이, 넓은 안목으로 불교를 지키고 널리 펴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산악인련은 "종단 및 산림보호협회 등과 연계해 사찰환경을 수호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산악인이 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재 지킴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불교산악인연합회는 98년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된 이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제언',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 '효행대상 시상' 등의 행사를 통해 불교 포교에 노력해 왔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강주 지안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산악인 불자들.

게시판

알림

▲불교사회복지회 후원의 밤=불교사회복지회는 17일 오후 5시 30분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자원봉사 및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051)868-0951

▲<사업운영평가보고서>발간=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운영평가보고서-제1호〉를 발간, 배포한다. 2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보고서에는 복지관의 사업 현황 및 평가와 프로그램 등이 수록됐다. (02)385-1351

모집

▲노인 동절기 의약품=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 동절기 의약품 구입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은 (사)불국토에서 개설한 부산은행(021-13-000625-6) 및 농협(1066-01-002035)의 계좌를 이용. (051)866-0454

▲노인 야외 나들이 용품=서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노인 야외 나들이 후원품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1일까지. (02)2203-3677

▲고3 단기특강 수강생=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기 특강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스트레칭 교실, 홈페이지 제작교실 등. (051)868-0750

▲백일장 원고=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독후감을 모집한다. '가을'이나 '친구'를 주제로 동시와 생활문, 독서감상문, 그림등화 등을 복지관에 제출. (051)363-2063

▲장애아동 부모아카데미 참가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 부모아카데미'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월 오후 2~3시 복지관 1층 집단 상담실에서 열린다. (02)989-4215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우리 모임에선

언론인회 와우정사서 법회


한국불교언론인회는 3일 경기도 용인 와우정사에서 순례법회를 봉행하고, 미얀마 대승정 우 게 메인 다스님을 친견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는 이날 열린 열반종 창종 31주년기념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불교보감〉 고불식에도 참석했다.

하불동 12대 운영진 발대

하이텔불교동호회는 3~4일 경기도 가평 육왕사에서 제12대 운영진 발대식을 가졌다. 유인자 대표시숍(인터뷰 4면) 등 30여 명은 '수행의 첫 걸음'을 주제로 한 경북 포항 죽림사 주지 혜덕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하불동의 화합과 발전을 서원했다. 한편 하불동은 4일 열린 육왕사 봉불식에도 참석했다.

서울은 불자회 정기법회

서울은행 불교행우회는 8일 오후 7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권태증 회장 등 20여 행원 불자들은 지도법사 안니옥 법사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지고, 12월 중 불교행우회 창립 기념법회 일정을 논의했다.

국립경찰병원 환자법회

국립경찰병원 불자회는 9일 오전 12시 환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원 및 입원환자 50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 도리로 세상을 보자'를 주제로 한 지도법사 혜광스님(서울 봉천동 참나선원장)의 법문을 들었다. 경찰병원 불자회는 매주 금요일 환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정신병원불자회 경전공부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는 12일 정오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30여 회원들이 등참해 명성여고 이학주 교법사의 집전으로 예불을 올리고, 경전 공부와 정근 방법을 배우며 신심을 다잡았다.

三論宗 中興祖 大仙大宗師 舍利塔
除幕 및 1週忌 追慕大法會案內

귀의삼보 하옵고,
본 종단의 중흥조이신 대산당 이혜봉 대종사의 사리탑 제막식 및 1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종도와 문도스님과 교계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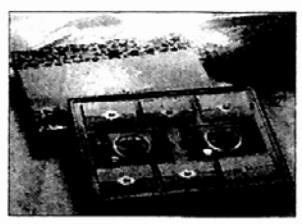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45년 11월 25일 (음력 10월 11일)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539-21 우암정사
◇ 주 최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대산문도회
◇ 후 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문의처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 02)433-9780
우암정사 : 043)852-3000, 4000

불기 2545년 11월 14일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석 혜 승
대산문도회 회장 정추봉
대산문도회 일동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뱃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